

INTERIORS



RESUME UNStudio 유엔스튜디오

SECOND House 세컨드하우스

Hong Kong Lighting Fair 홍콩국제라이팅페어

Dec 2010
1986 ▶ ISSUE NO. 291
₩16000
www.INTERIORSKOREA.com

12
9 771227 182008

ISSN 1227-1829

12



Muziekgebouw Frits Philips Eindhoven

설계 · Van Eijk & Van der Lubbe, Geldrop

프로젝트팀 · Van Eijk & Van der Lubbe, Geldrop, Philips Ambient Experience Design (creative concept & art direction), Eindhoven

위치 · Jan van Lieshoutstraat 3, Eindhoven, The Netherlands

조명디자인 · Rapenburg Plaza, Amsterdam

그래픽디자인 · Gerard Hadders, Schiedam

사진 · Frank Tielmans, Merel van Beukering

면적 · 11,000m²

취재 · 이민선



에인트호벤 중심에 단순히 첨단기술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필요에 딱 맞게 맞추어진 조명, 디자인, 기술이 혁신적으로 통합된, 초현대적이고 흥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미래의 음악센터가 들어섰다.

Geldrop의 닐스 반 에이크(Niels van Eijk)와 미리암 반 더르 뤼베(Miriam van der Lubbe)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콘서트홀의 인테리어와 외관을 모두 디자인했다. 이 두 사람은 조명, 이미지, 그리고 특별히 개발된 기술의 이례적인 구성으로 연출하였다. 이 조명, 디자인, 기술은 관객들이 건물 입구에서 콘서트홀로 입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객들은 휴게실로부터 첨단기술을 접하고, 벽체에서 천정 너머로 움직이는 미묘한 조명 사인을 거치며, 콘서트홀까지 직관적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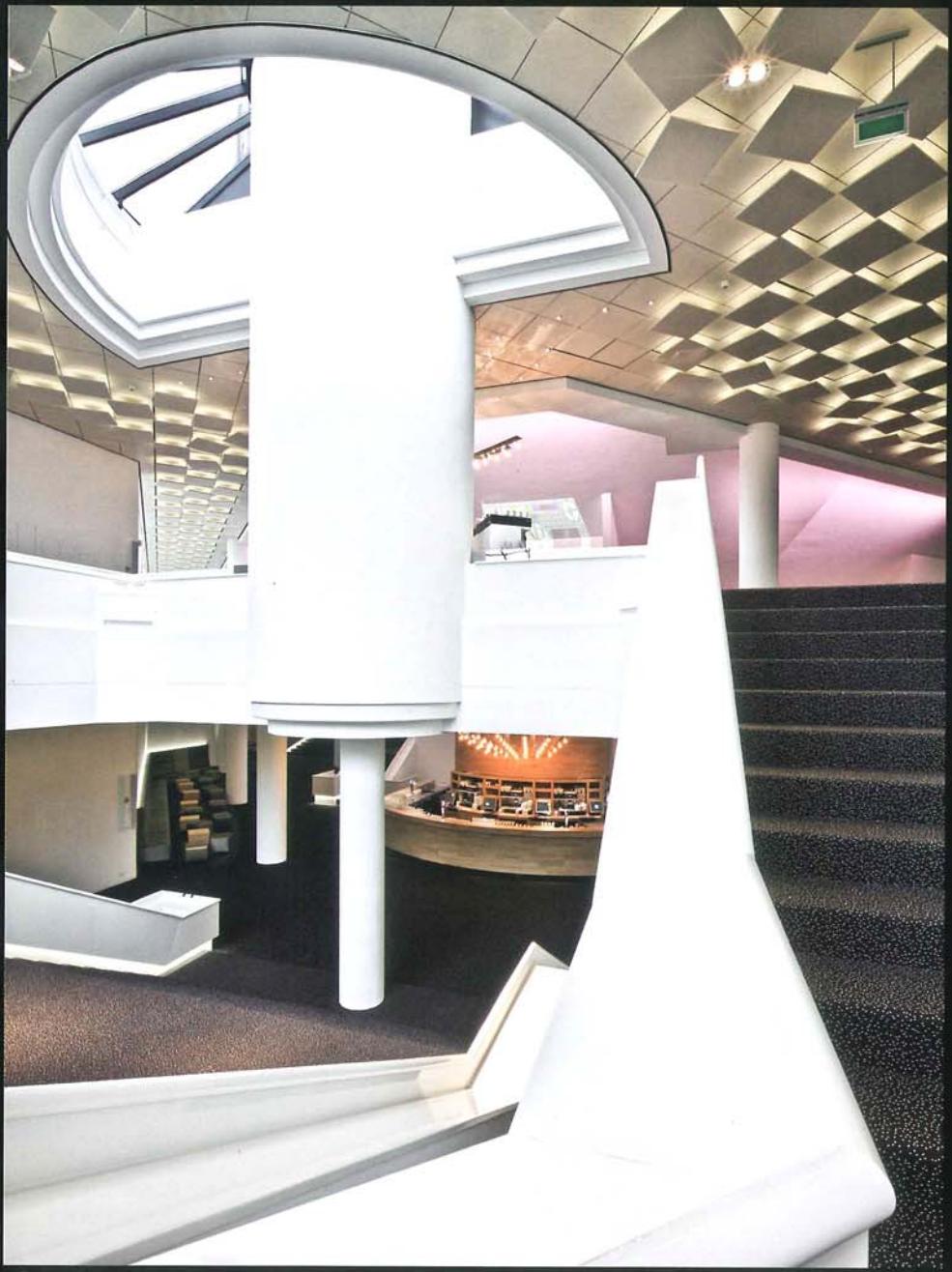
반 에이크와 반 더르 뤼베는 특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거대한 유리 파사드로부터 휴게실까지, 유니폼에서부터 식기와 가구까지 모든 디테일을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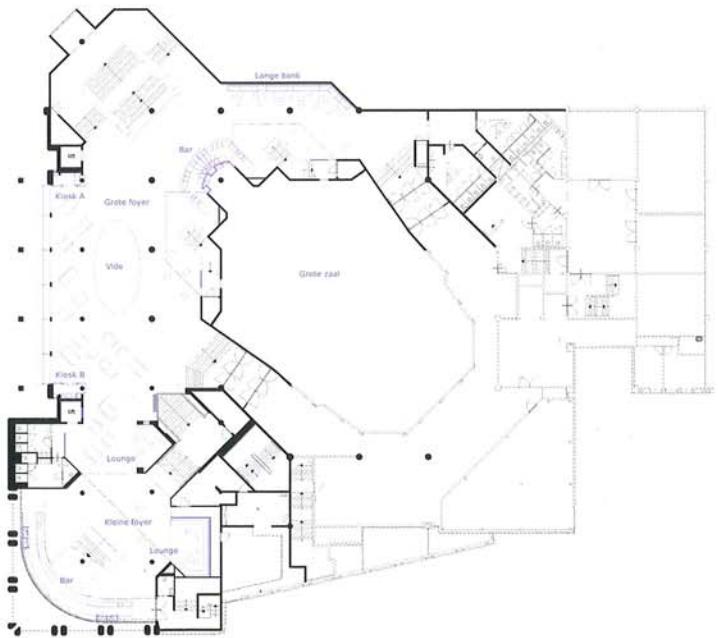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앞쪽으로 경사진 25m 너비에 13m 높이의 유리 파사드로 완성된, 신축 콘서트홀의 주 출입구이다. 뒤쪽으로는 문화적인 도시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낮 시간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음 악을 듣거나 살 수도 있다. 도시휴게소는 수천 개의 LED 조명으로 구성된 몇m 길이로 둘러선 벽체와 잘 어울 리는데, 이 벽체 위로 영화, 예술작품, 콘서트 등이 영상된다. 비주얼아티스트 Gerard Hadders는 이 살아있는 벽체의 내용을 작품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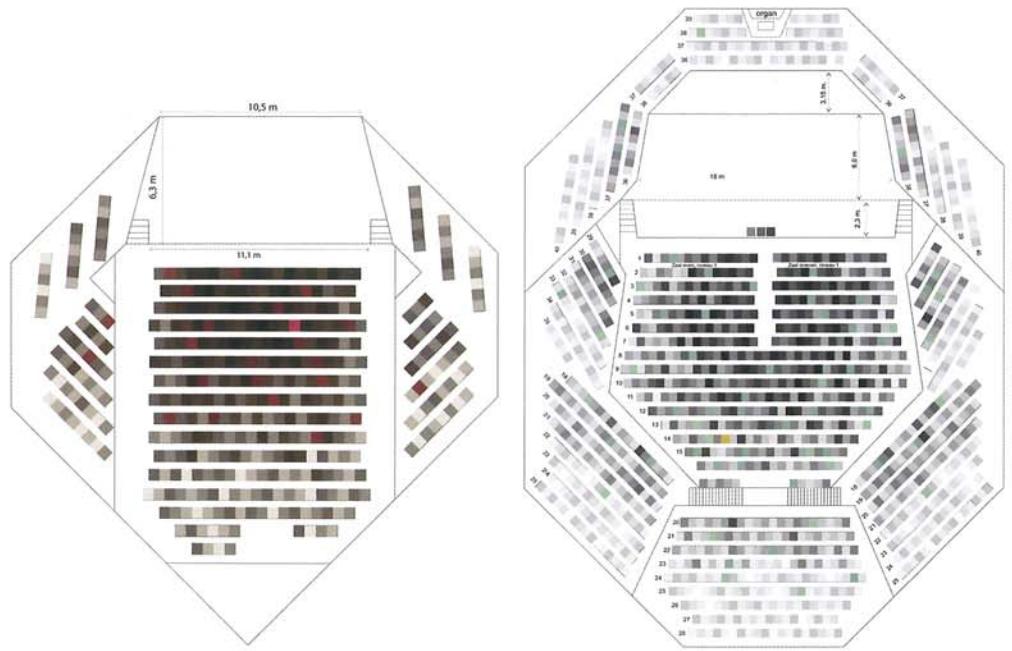
반 에이크와 반 더르 륨베가 특별히 디자인한, 오디오시스템이 부착된 '음악 듣는 의자'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사람이 앉으면 자동으로 조도가 낮아지는 조명과 함께 휴 게실 내에서 인기를 끄는 좌석이 되었다. 이 두 디자이너는 휴게실에 비치한 다기능 가구와 혁신적인 조명 시스템을 설치한 2인용 의자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그 외 가구로는 네덜란드 브랜드인 렌스벨트(Lensvelt)와 이탈리아 브랜드인 스키치(Skitsch)의 컬렉션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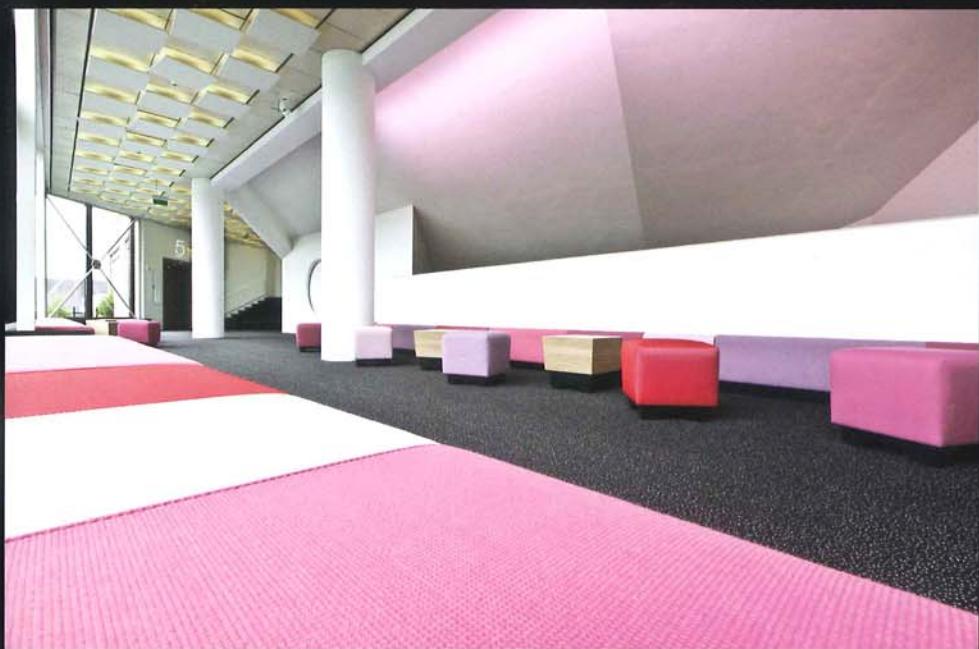












In the middle of Eindhoven now stands the absolute music centre of the future, a place where lighting, design and technology are integrated innovatively, without it becoming merely a high-tech building.

Niels van Eijk and Miriam van der Lubbe of Geldrop designed both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around the central idea of the Concert Hall as a meeting place. Together with Philips Ambient Experience Design, Hypsos and Rapenburg Plaza, the duo produced an exceptional composition of light, image and specially developed technology. Take for example the way concert-goers are led intuitively from foyer to concert hall by way of subtle lighting signs which move from a high-tech wall and over the ceiling.

Van Eijk & Van der Lubbe designed every detail especially for this project, from the enormous glass facade to the foyers and furniture, from the working wear to the crockery.

The most remarkable change is to the main entrance of the new Concert Hall. This consists of a forward-leaning glass facade, 25 meters wide and 13 meters high. Behind it is a cultural city-foyer where people are welcome throughout the day for a cup of coffee, and to listen to, and buy music. The city-foyer will be fitted with an ambient wall, several meters long, consisting of thousands of led lights, on which films, works of art and concerts will be projected. Visual artist Gerard Hadders realised the content of this living wall.

Visitors can listen to their favourite music in 'listening chairs' with integrated audio systems, designed specially by Van Eijk & Van der Lubbe. They also designed multi-functional furniture for the foyers, and special duo-chairs with an innovative lighting system.

